

## 출판윤리규정

1.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날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 및 게재가 불가하다.
2. 대한혈관외과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 헬싱키선언(1964년 발표, 2004년 개정, [www.wma.net/e/policy/b3.htm](http://www.wma.net/e/policy/b3.htm))에 합당하게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연구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토록 권장한다. 동물실험의 경우 실험이 실시된 기관의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기술토록 권장한다. 저자들은 논문작성에 사용한 실험자료 원본을 논문출간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중게재에 대한 방침: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원고는 본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타지에 실을 수 없다. 다만 일부 발췌를 원할 때는 본래 논문의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복출판(multiple or duplicate publication)은 양측 편집장의 허락을 받고,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4. 윤리 규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을 따른다.
5. 윤리 규정에 따른 이중게재에 대한 징계 절차: 논문의 이중게재가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는 이중게재의 여부를 판단하고 제1 저자 및 교신 저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중게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단순한 실수에서부터 의도된 날조 및 변조인지 그 경중을 따져 제1 저자 및 교신 저자에 대한 각각의 징계 수준과 위반 논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대한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결정된 징계 내용을 집행한다.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8년 1월 30일 발행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중에서 발췌 p. 30~35

## 다. 중복출판

## 1. 이중게재의 정의와 유형

근본적으로 이중게재는 일련의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내용의 연

구를 표본수를 늘리거나 줄여서임으로써 같은 결과의 논문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von Elm 등은 이중게재의 유형을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6가지로 나누었다. 1) 표본수가 같고 결과가 같은 것, 2) 표본수가 같고 결과도 같지만 두 개 이상의 논문을 짜집기하여 만든 것, 3) 표본수가 같으나 결과가 다른 것(주로 분할출간이 해당된다), 4) 표본수를 늘리고 결과가 같은 것, 5) 표본수를 줄이고 결과가 같은 것, 6) 표본수가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것 등인데, 6)의 경우는 발견이 매우 어렵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표본수가 다르지만 결과가 같은 경우도 있다. 즉 연구 대상의 모집단을 나누어 발표하거나 같은 연구를 두 번 시행할 수도 있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체에서 제정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는 이중게재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considerable parts)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 한다"라고 되어 있다. Cho 등은 흉부외과학 저명학술지 편집인들의 모임에서 이중게재의 기준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좀 더 구체적인 다음의 6가지 항목을 발표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가설이 유사하다. 2) 숫자나 표본의 크기가 유사하다. 3) 방법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4) 결과가 유사하다. 5) 최소한 저자 1명이 공통이다. 6)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적다. 그러나 겹치는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유사하다'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이중게재의 판정에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다.

연구자들이 가장 흔하게 착각하고 있는 사항은 출간된 논문과 논문내의 증례, 사진, 표 등에 대한 저작권을 저자 자신이 가진다고 오해하고 있는 점이다. 중요한 점은 일단 출간된 논문(용역 연구 결과보고서 포함)은 이미 저작권이 학술지 또는 출판사에 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쓴 논문이라도, 그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내용도 해당 학술지 편집인 또는 출판사의 허락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술지에 따라 투고규정에 저자가 편집인의 승인 없이 자기 논문의 내용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 재사용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논문이라 할지라도 본문의 일부, 표, 그림의 중복사용은 자기 표절(self-plagiarism)이 되거나 이중게재에 해당될 수도 있다.

직접적인 이중게재는 아니지만,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출간단위(least publishable unit)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출간하는 분할 출간(divided, fragmentation or salami publication)이나 출간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덧붙이기 출간(redundant, overlapping, repetitive or imalas publication)도 중복출간에 포함된다.

이중게재의 기준은 학술지에 따라 약간 상이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회와 관련된 학술지는 학술대회에서 구연한 논문이나 학술전시는 완전한 논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논문으로 전환하여 투고하였을 경우 이중게재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Nature'와 'Science'같은 엄격한 학술지는 논문의 표, 그림 등 지적자료가 포함된 학술발표나 전시는 이미 '새로운 것'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게재를 거부한다.

유사한 목적의 논문이거나 대상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논문이지만 저자가 새로운 논문이라고 주장하려면 우선 저자는 이 원고를 먼저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에서 채택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학술지는 과거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성이 있는 원고에 대해 이중게재의 가능성은 물론, 새로운 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학술지내에서의 중복게재는 흔하지 않다. 같은 학술지에 투고 할 수 없는 논문을 원저를 숨기고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매우 부정직한 행위이다. 이중게재의 판단은 전적으로 심사위원과 편집인의 역할이다. 따라서 유사성이 있는 논문이라도 저자가 새로운 것이라는 자신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을 솔직하게 편집인에게 밝히면 채택될 가능성도 증가되고, 거부되더라도 이중게재의 오명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나 과거를 숨기고 투고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택될 기회는 적어지고 이중게재의 오명을 남기게 된다.

## 2. 국내에서 발견되는 이중게재의 특징

국내에서 발견되는 이중게재는 대부분이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일정기간 후에 외국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다. 출판의 간격은 1~2년이 대부분이며, 드물게 외국에 먼저 실린 논문을 국내 잡지에 이중게재 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업적 경쟁이 심하고, 실제적으로 우수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우수 연구기관에서 이중게재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같은 논문의 이중게재는 동시 중복투고의 경우 간혹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저자는 이차 투고 시 논문을 약간 변형시킨다. 논문의 제목이 바뀌고 저자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제1저자가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이중게재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수를 추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분석방법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출간된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내 학술지간 이중게재는 분할출간과 덧붙이기 출간이 대부분이다. 이때에도 이중게재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다른 학술지에 2차 투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할 출간은 논문 수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연구를 설계할 때부터 분할 출간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는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련의 연구로 얻어진 전체 자료를 여러 개로 쪼개어 여러 개의 논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출간에 해당된다. 중복 출간의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논문제목을 다르게 만들고 저자진도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가 흔하다.

새로운 기술, 기자재, 약품 등이 도입되면 국내에서 첫 저자가 되기 위해 적은 증례를 가지고 서둘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적은 증례 수의 논문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례수가 많아지면 다시 같은 내용의 논문을 쓰고 싶게 된다. 덧붙이기 출간이며 역시 중복 출간에 해당된다.

## 3. 이중게재의 문제점

중복 출간은 비윤리적인 행위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학술지와 독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학술지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심사에 심

사위원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여야 하고, 학술지의 지면을 소비한다. 또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의 게재를 막거나 지연시키기도 한다. 색인기관도 중복된 자료를 색인하여 질적 저하와 공간의 손실을 초래하고, 통계 수치의 오류를 초래한다. 독자나 연구자는 이중 검색으로 노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실망을 안겨준다. 아울러 이중게재 논문이 포함된 연구업적으로 다른 신청자를 물리치고 연구비를 획득했다면 연구비 수여기관의 질서를 문란시킨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중게재는 실험의 결과를 왜곡시킨다. 실험 자료가 두 개의 논문으로 발표되고, 결과들을 모아 메타 분석하는 경우에는 표본이 중복 산정되어 결과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잘못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중게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정평있는 학술지는 중복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고 시에 저작권 이양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이양서에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타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다'라는 서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게재를 하는 저자는 부정직한 연구자로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 더욱이 결과가 일부 다른 경우에는 논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 이 논문을 찾은 독자는 실망과 허탈을 느끼게 된다.

일부 연구자는 채택률이 높지 않은 상위 학술지에 투고할 때 채택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유사 상위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채택되는 학술지에 게재하고, 다음 학술지에서도 채택되면 논문을 취소하려는 것이다. 중복투고는 저작권 이양서의 약속을 위반한 매우 부정직한 행위이며, 게재 이전에 발견되면 편집인 간의 교류에 의하여 게재거부는 물론 저자들에 대한 처벌도 논의될 수 있다. 이중게재와 관련된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저자가 채택된 논문의 취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중게재인 경우에는 게재거부는 물론 처벌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학술지는 전문가심사(Peer review)를 거쳐 채택된 논문의 취소를 허가하지 않는다.

## 4. 이중게재의 빈도

2007년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KoreaMed 등재 논문의 이중게재 여부에 대한 조사연구가 있었으며, 2004년에 출간된 논문 9030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약 5%의 논문(455편) 중 27편(5.93%)이 이중게재로 판정되었으며 단순 이중게재가 65%, salami가 14%, imalas가 21%였다(Korean J Med Sci, in press).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적 연구 보고는 없으며 학술지별 또는 외과계, 안과계 등 유관학술지를 중심으로 이중게재의 빈도가 보고되어 있다.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크며 성형외과계 학술지에서 1% 미만, 안과계 학술지 1.39%, 마취과계 학술지에서 8.3%, 이비인후과 학술지는 1.8%와 8.5% 등을 보고하고 있고, 외과계 학술지에서도 22.3%의 중복게재를 발견했으며, 이중게재는 13.5%, 의심스러운 경우가 34%, 분할출간이 52.4%였음을 보고하여 분할 출간이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5% 전후의 이중게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 5. 허용되는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

학술지와 편집인 기구에 따라 이중게재와 이차게재의 허용기준에 차이가 있다. 다른 언어로 발표하는 경우, 독

자증이 다른 경우와 종설은 이중게재가 가능하다는 경우도 있다.

ICJME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차 게재라는 명목으로 중복 출판을 허용한다.

- 1) 저자는 두 잡지 편집인 모두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 출판 원고를 받은 편집인은 일차 출판물의 복사본이나 재인쇄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일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출판 간격을 둔다.  
(두 편집인들의 협상한 경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 3) 이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 4)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5) 표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사무국에 현 원고의 전체 혹은 부분이 다른 잡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적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잡지 이름, 전체 참고문헌]에 처음 보고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이차 출판승인 비용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 6) 이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이것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재출판, 요약재출판, 원역, 요약 번역)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학도서관에서는 번역을 “재출판”으로 간주하지 않고, 원저가 출판되어 있고 메드라인에서 색인되어 있으며 번역본은 색인하거나 인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와 미국의 독자가 언어가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차게재가 허용되지는 않는다.